1. 숙종의 시대

제19대 조선 왕 숙종(肅宗, 1661～1720)은 재위 기간이 1674년부터 1720년까지, 46년간 왕위에 있었다. 이름은 이순(李焞), 자는 명보(明普)이며, 제18대 왕인 현종과 명성왕후 김씨의 외아들로 경덕궁 회상전(會祥殿)에서 태어났다.

6살이 되던 1667년(현종 8년) 정월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674년 8월에 즉위, 재위 46년이 된 1720년 7월에 경덕궁 융복전(隆福殿)에서 사망하였다. 자녀로는 영조·경종·연령군 등이 있으며, 배우자로 인경왕후(1671년～1680년), 인현왕후(1681년～1688년) 그리고 인원왕후(1702년～1720년)가 있었다.

1671년 10살 때 김만기(金萬基)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했는데, 이 부인이 인경왕후(仁敬王后)이다. 3년 뒤 13살 때 1674년 8월에 부왕 현종이 승하하자 국왕에 즉위했다. 이때 14세였다. 정권 초기 숙종은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을 숙청하고 허적·윤휴·허목 등 남인들에게 정권을 맡겼다. 남인은 현종 말년에 일어난 예론(禮論, 갑인예송)에서 승리하여 득세하였다.

1678년(숙종 4년)에 영의정 허적이 새 화폐 제조와 유통을 건의하여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본격적으로 제조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되었다. 활발해지기 시작한 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화폐 제조 사업이었다. 상평통보는 조선시대의 유일한 법정 통화였으며,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용된 화폐였다. 이러한 화폐의 유통은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후 조선 사회의 상업 발달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680년(숙종 6년)에 첫 부인인 인경왕후가 천연두를 앓다가 사망했다. 숙종은 이듬해 민유중(閔維重)의 딸을 계비로 맞이하였다. 이 부인이 인현왕후(仁顯王后)이다. 이해 영의정 허적의 서자 허견(許堅)의 역모와 관련하여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였다.(경신환국庚申換局) 서인은 이때 군권까지 넘겨받았다. 서인은 이후로 노장파와 소장파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송시열과 그의 제자 윤증 사이의 불화로 노장파의 노론과 소장파의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1682년(숙종 8년)에는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으며 이후 1711년과 1719년에도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외교활동을 통해서 조선은 일본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왜관 무역의 조례를 확정 짓고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확실히 하였다. 울릉도와 독도 문제는 다행히 1693년에 어부 안용복(安龍福, 생몰년 미상)이 두 차례나 일본에 가서 일본의 불법 고기잡이에 항의한 결과였다. 그가 쫓던 일본인 어부들은 호키의 태수에게 붙잡혀서 월경죄로 모두 사형을 당했다. 결국 그는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나 당시 조정의 관료들은 그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교 분쟁을 일으킨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사실 그는 조정과 사전 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외교 교섭을 행한 것이었는데, 그 성과가 인정을 받은 것은 18세기 이후였다.

또 1712년에는 청나라 측과 협상하여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세워서 북쪽 국경을 정리하였다.

1688년(숙종 14년) 10월에 소의(昭儀) 장씨(張氏)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제20대 국왕 경종(景宗)이다. 이때 숙종은 소의 장씨를 승격시켜 희빈으로 봉하였는데, 다음 해 1689년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서인들이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였으나 숙종은 이를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사환국(己巳換局)을 통해 서인들을 숙청하여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다. 숙종은 이어서 같은 해 5월에 왕자를 낳지 못한 인현왕후를 폐출(廢黜) 시키고 희빈 장씨(禧嬪張氏)를 왕비로 삼았다. 숙종은 남인들을 다시 정권으로 불러들이면서 서인파 노론의 영수로 활약했던 송시열을 사사(賜死) 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인현왕후는 노론 가문 출신이었으며 희빈 장씨는 역관 가문 출신으로 남인과 연계가 있었다. 이렇듯 국왕의 가족은 당파 싸움과 깊은 관련이 있어 정국의 갈등은 더욱 치열했다.

1694년(숙종 20년), 숙종은 갑술환국(甲戌換局)을 단행하여 집권파인 남인을 숙청하고 다시 서인을 대거 기용하였다. 이때 서인은 노론과 소론 사이에 갈등이 더욱 심해져 정쟁이 격화되었다. 남인은 이후에 당파로서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폐출되었던 인현왕후 민비는 이때 복위되었고 대신 희빈 장씨는 왕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이해 9월에 숙의 최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후일의 영조(英祖)이다. 1701년(숙종 27년) 8월에 인현왕후가 사망하였다.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하였다는 죄를 물어 자진하게 하였다.

1702년 10월에 숙종은 김주신(金柱臣)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이 왕비가 인원왕후(仁元王后)이다. 1708년(숙종 34년)에 대동법(大同法)을 황해도 지역에도 실시함으로써 대동법의 전국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 광해군 때부터 실시된 대동법은 이미 1677년에 경상도에서 실시하였고, 1717년에는 황해도에서 실시하였는데 이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다. 이러한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제도로 1894년 세계 개혁 때까지 조선 시대 후기 세금 징수와 재정 분야에서 근간을 이루는 제도가 되었다.

1716년, 그동안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분열되어 불안한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즈음부터 남인 일색의 정권이 갖추어지면서 소론이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 (변신 처분)

1720년(숙종 46년)에 전국적인 양전 사업(量田事業, 즉 토지 조사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광해군 때 시작되었는데 1709년에 강원도, 1720년에 삼남 지방 등에서 실시하였는데 이때 전국에 걸친 양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 이것 역시 숙종 시대 경제 분야에서 이룩한 큰 성과였다. 앞에 소개한 대동법과 함께 이러한 경제 정책은 조선 시대 후기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조·정조 시기 중흥의 토대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해에 숙종은 회갑을 맞이하였는데, 6월부터 병이 깊어져서 6월 8일(음력, 이하 월일은 모두 음력임)에 경덕궁(慶德宮)의 융복전(隆福殿)에서 승하하였다. 시호는 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이고, 묘호는 숙종, 능호는 명릉으로 경기도 고양시의 서오릉에 있다.

숙종 시대에는 조선 중기 이래 계속되어 온 붕당정치(朋黨政治)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폐해가 심각하였다. 송시열과 윤증(尹拯)사이에 일어난 갈등으로 회니시비(懷尼是非) 가 있었으며, 왕세자(경종)와 왕자(영조)를 각각 지지하는 소론과 노론의 분쟁 등 당파 간의 정쟁 역시 매우 격심했다. 또 외척의 권력 장악에 대한 사류들의 비판, 왕과 관료들 간의 충돌까지 곁들여져 붕당정치의 폐단은 더욱 심각하였다.

남인 세력은 숙종 초기에 이미 서인 처벌과 정국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심해져

청남(淸南)과 탁남(濁南)으로 분열되었다. 탁남파로는 허적, 민암(閔黯), 민희(閔熙), 오시수(吳始壽) 등이 있었으며, 청남파로 허목·윤휴·홍우원(洪宇)·권대운(權大運)·이봉징(李鳳徵)·이옥(李沃) 등이 있었다. 서인 역시 노론과 소론으로, 그리고 노론 역시 화당(花黨)과 낙당(駱黨)·파당(坡黨) 등으로 분열되는 등 각 당파 내부의 반목과 갈등도 심각해졌다.

숙종은 집권세력을 일거에 바꾸는 환국 정치로 이를 타개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효종·현종 시기 이래로 손상된 왕실 권위와 약화된 왕권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숙종은 적절한 권력 안배와 교체로 붕당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자신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환국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윤휴(尹鑴)·허적(許積)·이원정(李元楨)·송시열·김수항(金壽恒)·박태보(朴泰輔) 등 당시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사망하는 화를 입었다.

결과적으로 왕권은 강화되었고 남쪽에서의 왜란과 북쪽에서의 호란을 겪으면서 무너진 사회 체제의 전반적인 복구와 정비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또한 대동법의 실시와 양전법의 추진 등 각종 제도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강화된 왕권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